

극악한 동족대결광에 대한 분노의 표출

최근 남조선의 진보운동세력들속에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는 윤석열을 규탄, 저주하는 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60여개의 진보운동단체들이 망라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주주의연맹은 《전쟁반대, 평화수호》라는 주제로 첫 《민족자주화해행동》을 개최하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중단시키고 평화로 나아가려면 전쟁광, 《검찰왕》인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을 반윤석열투쟁과 병행하여 벌였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개혁과 전환 초보행동연대》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도 파거 보수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패당에게 맞서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총력기해나설것을 결의하고 다양한 형식의 투쟁들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윤석열이 권력의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남조선 각계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바로 선임자들도 쟁쟁함을 자랑한 특동동족대결광이기 때문이다.

그가 《대선》전부터 《살길은 한미동맹강화》, 《일본과의 미제지향적인 관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 등 매국노 리한용도 낮을 불릴 사대매국적인 망발을 일삼고 감히 《북은 주적》, 《북에 대한 신제라적》, 《북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따위를 함부로 뱉어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런자가 《대통령》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북남사이에서 대결과 불신이 더욱 격화되고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불안한 정세가 조성되리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가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집권기간 추악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처나타지 못한 박근혜당의 망동으로 북남사이에서 총포탄이 오가는 협박한 사태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윤석열이 노는 꼴을 보면 그 살벌했던 광경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것을 남조선

《4월위기》, 누가 몰아오는가

남조선에서 그 무슨 《4월위기설》이라는 것이 나돌고있다.

내용을 보면 북이 신형대륙간도미사일 발사하여 미국을 더욱 팔치아프게 자극할것이라는것, 4월에 강행하기로 계획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에 북이 강도높은 군사적조치로 대응할것이라는것, 북의 전략무기시험발사에 대비한 미국전략자산의 남조선과 주변에 대한 전개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것이라는것 등이다.

최저는 늑이 제 그림자 보고도 놀란다의 격이 아닐수 없다.

마치도 그 무슨 《위기》라는것이 공화국의 전략무기시험발사와 《군사적조치》때문이라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태의 진상을 외곡하는 비렬한 허두리이다.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격화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망동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앞에서는 평화와 협력, 대화에 대해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전쟁불장난에 광분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다. 최근에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상반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일정을 기본적으로 확정하고 4월부터 군사연습에 진입하려 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후원밑에 동족을 치기 위한 각종 무기와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족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문제시하면서 미국을 위시

《동일백서》가 아니라 자백서를 내야

최근 남조선당국이 《2022 통일백서》라는것을 발간, 배포하였다고 한다.

당장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할 판에 그 무슨 《백서》라는것을 발간한것도 우스운노릇이지 않는가? 《백서》란것이 온통 자화자찬과 책임회피로 일관되어 있어 남조선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합의들을 어느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와 《평화》의 막뒤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친미사대굴종과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 왔다는것은 세상 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당국이 미국의 손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남북관계가 친척되지 못하였다, 당국의 대미굴종정책이 문제라고 하면서



현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그런데도 이번 《백서》에 그 무슨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과 《역할》에 대해 쪼아박았다고 하니 그 철회포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남

취임전부터 망조가 든 새 《정부》

거짓과 교활성은 바로와 위선자들의 은신처라는 말이 있다.

《소통》, 《통합》을 읊조리며 이른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뽀대상을 퍼주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난감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소야대》로 될 정치국면에서 《식물대통령》으로 전략될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권보술수에 불과한것이다.

진심과 상반되는 언행을 일삼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해준다.

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 특히 녀성들이 녀성가족부제지공약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강행하겠다고 하는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나가겠다는 윤석열의 본심을 보여주고있다.

심각한 불평등, 직업불안정, 낮은 출생률, 로인빈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패정치, 미국과 일본에 남조선의 모든것을 넘겨버리는 사대굴종정치, 바로 이

과거의 암흑기가 되살아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인수와 새 《정부》의 정책수립을 맡아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주위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도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반쪽짜리 당선인》의 앞으로의 정치가 어떨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는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저버려 기회주의자, 배신자로 비난받고있는 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이른바 《실무형의 전문가》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전 보수 《정권》에 복무했던 악질대결본

민심의 격분을 자아내는 당선자의 이사늘음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에서 통산으로 이전하기로 한것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국민과 소통》한다며 광

화문으로 옮겨갔던 공약을 현실적버리듯하고 통산의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의 진짜 본심은 무엇이었는가.

대 윤석열은 무당에게 넘을 뻔했던 청와 《건진법사》라는 무당에게 지배당하고있으

산불피해는 왜 수습되지 못하는가

최근 남조선에서 련이어 발생한 초대형산불피해로 하여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있다.

지난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만 하여도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3만 490여개의 축구장크기와 맞먹는 2만 1772ha의 산림을 불태워버렸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련속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채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들이 재더미로 되었으며 수천세대대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산불피해가 너무 큰것으로 하여 현지 주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고있으며 화재현장은 전경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참담하게 변해버렸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뒤늦게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지만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 실태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산불피해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산불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당국이 산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올해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당국의 허술한 산림관리와 미흡한 피해복구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초대형산불피해를 저지른 정략적목적에 악용하는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것들의

행태는 더욱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생을 위해 무엇인가 할것처럼 너스레를 떨던 윤석열은 피해지역에 찾아가 《지원》이니 뭐니 하는 달콤한 약속을 하고서는 돌아앉아 친문학적역수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대통령》사무실 이전에 몰두하고있다.

예대장 윤석열을 비롯한 보수패당에게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의 고통을 가셔주려는 티끌만한 마음도 없었고 오직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환장되어있을뿐이다.

《윤석열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무실을 강압이전하여 주민들의 혈세를 날리려는것을 막아달라》, 《사무실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라》.

남조선민심의 터치는 이 울분의 목소리는 인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정치적리해관에만 저울질하는 윤석열보수패당에 대한 준렬한 타매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선제 타격》 받은 국방부

윤석열이 통산에 있는 국방부에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리유의 하나가 《편리성》이다. 국방부청사에는 지하방공

호가 있고 직승기도 쓸수 있고 국방부와 련계를 쉽게 가질수 있다는 등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더니 국방부와 제일먼저 소통하려는 모양이다.

아닐것이다.

선거기간 《대북선제타격》을 고야면 윤석열이그보면

통산은 사대매국의 《명당자리》

통산은 대대로 서울속의 남의 땅으로 불리워왔다.

서울 통산은 남조선장검미군의 기지로 알려져있지만 이전에는 일제의 군사기거지였다.

원래 지명은 평지에 솟은 작은 산을 의미하는 《둔지미》이었는데 일제에 의해 450년이상 사용된 자기의 이름마저 빼앗겼고 1906년에 《통산》으로 고쳐졌다고 한다.

통산은 일제의 해외침략의 거점으로, 조선청장님들을 전쟁대포로로 끌어가던 모 집장소로 리용되어왔다.

해방후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이후 통산은 미군기지로 전락되었다.

한세기념이 서울속의 남의 땅, 침략적인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온 수만의 력사가 기록된 땅에 사무실을 두겠다는 윤석열의 속심을 알만하지 않은가.

미국의 삼살개가 되고 일본과 입맞추자면 뿌리부터 갈아야 한다는, 친미, 친일을 《근본》으로 삼겠다는 흥심이다.

외세에 의해 불행의 력사를 강요당한 통산이 철정한 사대매국노의 등지로 전락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